



자판기, 불가능은 없다

기발하고 이색적인 해외 이색자판기 12선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이는 영역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판기 분야의 영원한 화두이다. 기발하고 독창적인 자판기의 제품화로 새로운 시장창출을 이룩해 낼 수 있다는 점이 자판기 사업의 최대 매력이다. 자판기 관련기술의 발달은 아이디어가 기발하면 어떤 품목이라도 상품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아무거나’ 만들 수 없다. 필히 자판기로서의 효용 가치와 대중적 소구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리수를 두었다간 한때 화제만 불러일으키는 자판기로 단명하기 쉽다.

국내에서는 과거보다 아이디어 지향적인 자판기들이 상품화되는 것이 크게 줄었다. 대중적인 시장을 창출하기 쉽지 않다는 리스크 요인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이디어 지향적인 자판기들은 해외에서 많이 상품화되고 있다.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사업성까지 충족하는 아이템들도 적지 않다. 무한상상! 불가능이 없는 자판기 사업의 장점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해외자판기들을 엄선했다. 이 자판기들이 무기력하게 가라앉아 있는 국내 자판기 산업의 개발 열기를 불사르는 계기가 되길!

끈따끈한 빵들이 자동조리되어 판매가 된다면 적지 않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최근 그 가능성을 얼핏 엿보게 만드는 제품이 프랑스에서 등장했다.

프랑스인들이 주식처럼 먹는 방망이 모양의 빵, 바게트를 만들어 파는 자동판매기가 출시 된 것. 제과점을 운영하는 장 루이 헤흐트씨가 고안한 이 바게트자판기는 미리 웬만 큼 구어 놓은 빵이 들어 있어 손님이 1유로(약 1천600원)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빵을 내놓는다. 헤흐트씨는 밤이나 휴일 혹은 바캉스철인 8월에 빵집들이 모두 문을 닫는 바람에 프랑스인들이 세끼 모두 즐겨 먹는 신선한 바게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이 기계를 고안했다. 프랑스에도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바게트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선호도는 절대적이어서 아침식사는 바게트가 기본이며 점심과 저녁 때도 바게트가 팔린다.

헤흐트씨는 2년 전부터 바게트 자판기 고안에 나섰으나 기

프랑스에 '바게트 자판기' 등장

▶ 제과점을 운영하는 장 루이 헤흐트씨가 고안한 '바게트 자판기'

제과점을 자판기로 대체하면 어떨까? 자판기 안에서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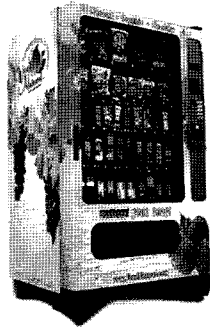


술적인 문제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포르투갈 기술자의 도움과 최신 기술 덕분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이 자판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프랑스 북부 옴부르오와 파리의 빵집 옆에 각각 하나씩 2개를 설치했다.

옴부르오의 바게트 자판기는 지난 1월 설치한 첫 달에 1천 600개를 팔았지만 최근에는 4천500개 가까이로 판매가 늘었다. 헤흐트씨는 자판기 가격이 5만유로(약 7천500만원)나 되지만 이런 식으로 판매가 늘면 1년 안에 자판기 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자판기 바게트의 이익률이 33%나 된다면서 관련 특허도 3개나 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야 두 번째 자판기를 파리에 설치했지만 이 자판기가 “미래의 제과점”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과일 파는 웰빙자판기 돌풍

이제 건강이 화두! 미국 자판기 시장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방부제와 설탕, 소금으로 버무려진 스낵과 음료 대신에 신선한 과일을 파는 ‘웰빙자판기’가 대세를 장악할지 주목된다.



미국 일간지 뉴욕 데일리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각급 학교와 병원, 그리고 회사 사무실이 밀집된 빌딩가에서 건강식만을 공급하는 밴딩 머신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철 과일과 두유 등 건강음료 및 갖가지 과자 등을 파는 이른바 웰빙자판기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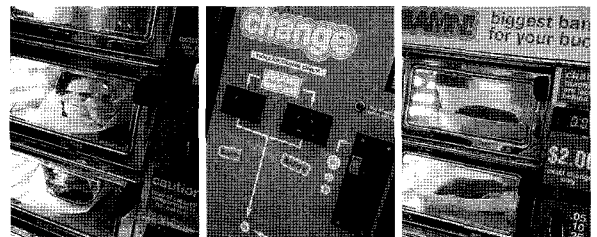
이는 미 연방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크푸드 식음료 공급을 강력히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42개 주가 학교 내에서 고칼로리와 염분 과다 함유 식음료 공급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도전에 대한 응전’ 법칙이라고나 할까. 자판기 회사들도 패스트푸드 대신 웰빙 식음료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프레시 헬시 밴딩(Fresh Healthy Vending)’, ‘밴드 내추럴(Vend Natural)’, 그리고 ‘휴먼 헬시 밴드(h.u.m.a.n. Healthy Vend)’ 등이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웰빙 경쟁’을 강조하다보니 몇 가지 논란도 일고 있다. 한

회사가 통제된 숙성 방식을 이용한 포장으로 바나나의 자판기내 보관기간을 6일까지 늘렸다고 선전하자 일부 언론에선 “웃기는 얘기”라면서 “바나나는 그 껍질이 가장 좋은 천연 포장재”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푸드점보다 빠른 미국 햄버거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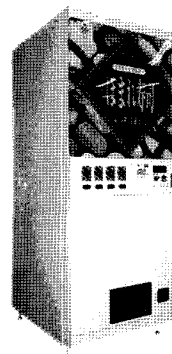
이 제품은 뉴욕시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햄버거 자판기이다. 판매가격은 2~3달러 정도이다. 돈 넣고 버튼만 누르면 제품이 나오니 패스트푸드점보다 빠르다. 자판기 밑쪽에 ‘Cation! base of automat compartment is hot hot hot!’ ‘Do not touch’ 라고 쓰여 있듯이 햄버거는 따뜻하게 보관되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자판기는 동전만 받는다는 사실. 근데 돈을 넣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동전을 넣는 곳을 보면 ‘exact change only this machine does not give change’ 라고 쓰여 있다.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자판기가 거스름돈을 내주는 기능이 없는 대신 지폐교환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햄버거 이외에도 핫도그, 빵, 음료 등의 자판기가 함께 있다. 이 자판기들은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매장 1층에 설치되어 있다.



스시, 일본에서는 자판기로 뽑아먹는다!

스시를 자판기로 판다. 자판기로는 절대로 안 팔릴 것 같은 것을 팔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스시자판기는 특수한 해동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 전자렌지와는 달라 냉동된 스시를 해동시키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자판기를 제조한 회사의 설명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시와 과연 맛이 어떻게 다른지 자판기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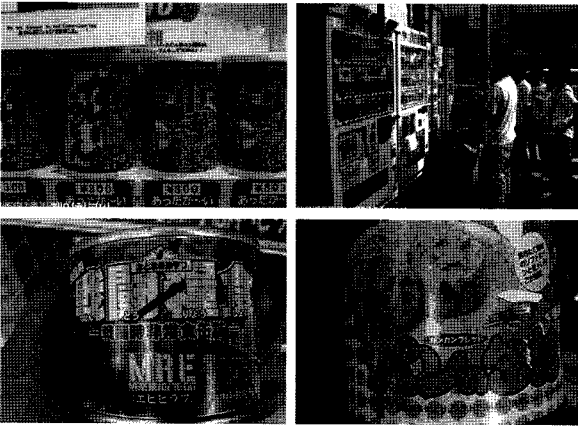
Something Special



해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오뎅과 전투식량, 닭꼬치를 캔으로 즐긴다.

일본 동경 아키하바라에 가면 이색 인기 자판기가 있다. 오뎅과 전투식량, 닭꼬치를 캔으로 파는 자판기이다.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자판기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인기가 높다. 오뎅캔이 특히 잘 팔리고 죽 같은 제품도 식사대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삿포로 라멘, 하카다 라멘, 탄탄멘 등 일본인이 좋아하는 라면제품도 판매가 된다. 이색적인 내용상품은 캔으로 나온 전투식량. 전투시 비상식품이라고 적혀 있다. 이 제품도 인기라에 판매되는데 실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용품이 아닌 민간 업자가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이라 한다.

자판기 모아놓은 무인상점!

최근들어 오피스 타운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 동경 시 오도메. 이곳에 가면 자판기만을 모아놓은 매점이 있다. 15개의 자판기에서 30여 가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일본 술을 팔고 있다. 퇴근후 혼자서 이자가야 같은 곳에 가서 한 잔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습성에 맞춰 간단하게 마실 수 있도록 안주와 술을 준비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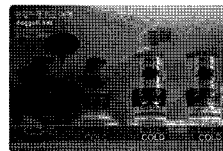
▶ 일본 술 자판기 바로 옆에 있던 맥주 자판기. 병맥주부터 캔까지 그가짓수만 얼추 10여 종류.



◀ 마찬가지로 맥주 자판기. 웬지 술판 벌일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술 자판기가 3대나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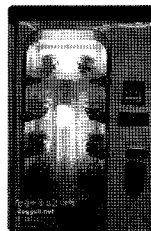


▶ 술이 있으니 안주도 팔아야한다! 술 자판기 바로 옆에 타코야키, 야키소바, 치킨, 볶음밥, 구운 주먹밥 등을 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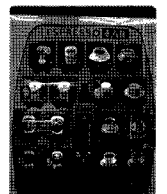


◀ 야쿠르트 자판기. 지브리스튜디오 인근 자판기에서는 우유도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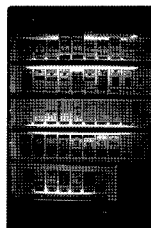
▶ 아이스크림 자판기. 롯데 제품이 판매된다.



◀ 역시, 자판기에 컵라면이 빠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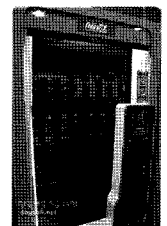


▶ 커피 자판기. 메뉴가 비교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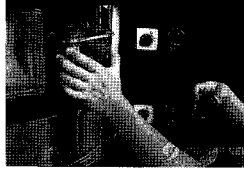
◀ 담배 자판기. 아키하바라에 가면 담배 자판기만 10여대 모아놓은 매장도 있다.

▶ 음료수 자판기. 아무래도 자판기하면 이 음료수 자판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벨기에에서 등장한 딸기 자판기

벨기에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가 딸기자판기에서 냉장 보관된 딸기 상자를 꺼내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딸기 자판기는 여름 내내 신선한 딸기를 공급하고자 이 마을 농민이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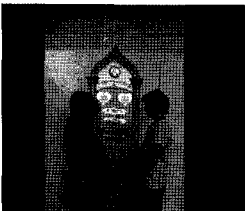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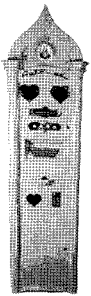
"복잡한 예식은 가라" 결혼식 자판기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팀 '컨셉세드'가 초간단 초스피드 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독특한 장치를 개발해 화제다. 이름하여 '오토웨드'라 불리는 이 장치는 바로 결혼식 자판기. 음료를 뽑아먹는 일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결혼식을 진행해주는 기계다.

동전을 넣는 순간 음악 반주와 함께 시작되는 이 자판기 결혼은 예식장도 주례도 사회도 걱정 없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 따라 결혼 서약을 하고 반지를 주고받고 본인들의 이름을 단말기에 입력하면 혼인증명서까지 논스톱으로 발급된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는 가짜 결혼이지만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하면서도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터. 아이디어를 실제 장치로 만드는 데 무려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다. 이 결혼식 자판기는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빈티지 코인기(자판기, 오락기 등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 전문 개인 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주례나 하객을 모시는 일이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거추장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다. 오토웨드는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결혼식의 종말을 예견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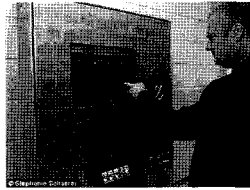
금값이 금값, 영국서도 금 자판기 등장

금값이 약 10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오르는 사이 심지어 돈을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 자판기'마저 등장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영국 서부 지역의 웨스트필드 쇼핑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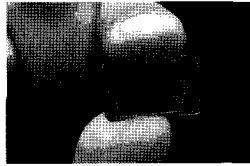
터에 첫 금자판기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골드투고(Gold to Go)사가 만든 이 자판기는 런던의 로고가 새겨진 2.5그램(g)의 순금을 개당 100파운드(약17만원)에 판매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판기는 영국에서 처음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천장을 금으로 칠한 초호화 호텔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팰리스 호텔에 처음 설치됐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 영국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설치된 금 자판기

씨넷은 같은 날 보도에서 "미 대표 증시인 S&P500지수가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는 동안 금값은 5배나 올랐다"며 "영국 골드버그(Gold Bug, 금과 같은 현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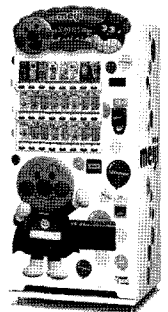
◀ 금 자판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런던 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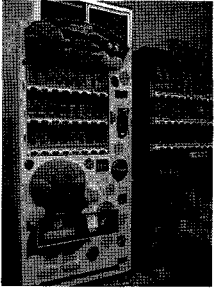
금시세사이트인 킷코(KITCO)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거래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는 런던 금값(London Gold PM Fix)은 올해 온스(약28g)당 평균 1445달러다. 10년 전 가격은 271달러이다.

아이들에게 인기 끄는 호빵맨 자판기

호빵맨은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 성인용 동화로 만들어졌다가 유아용 그림책으로 바꾼 뒤에 애니메이션이 되었다. 겨울에 흔히 즐겨 먹는 호빵을 모티브 삼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호빵맨을 기용한 '말하는 호빵맨 자판기'가 선을 보였다. 일본 식품회사 메이지가 호빵맨의 캐릭터로 만든 자판기이다. 음료 상품에 호빵맨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호빵맨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타깃으로 발매한





자판기라고 할 수 있다.

자판기 정면에는 호빵맨의 모습을 입체 패널을 배치하였다, 상품 투출구 옆에는 신장 90cm의 호빵맨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평범한 자판기처럼 보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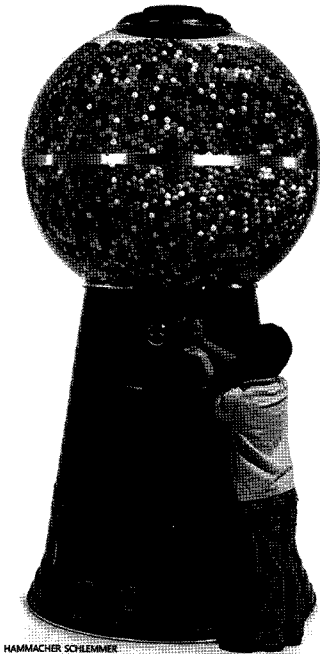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호빵맨의 목소리가 나와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의 나라, 일본의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판기.

거대한 껌 판매기, 높이가 2m... 언제 다 먹나~

14,000개가 넘는 껌이 들어가는 거대한 '껌 자동판매기'가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통해 판매 상품으로 나왔다.

이색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해커머 솔레머닷컴을 통해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이 자판기는 단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둥그런 대형 껌이 나오는데, 자판기 내부에 14,000개가 넘는 껌이 들어간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2m가 넘는 높이 등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이 자판기의



HAMMACHER SCHLEMMER

판매 가격은 3,900달러로, 우리 돈으로 400만원이 넘는다. 놀이 시설 등 아이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설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또 1960~70년대를 그리워하는 어른들을 위한 추억의 상품이라는 평이다.



잉어먹이 자판기

일본의 한 공원에 설치된 잉어먹이 자동판매기. 관광용으로 기르고 있는 잉어에게 주는 먹이를 판매한다. 잉어먹이 1갑에 100엔.

